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진근

'98 여름 단기선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팀별로 준비에 열중하는 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를 주제로 세우고 준비에 여념이 없는 '98 여름 단기선교 일정 및 지도부 명단이 다소 조정되었다. 5월 17일자로 확정된 일정별 국가와 지도부 명단은 아래와 같다.

현재 단기선교팀들은 팀별로 꾸준히 모이면서 기본적인 언어를 익히고, 현지언어로 부르는 찬양을 배우고, 선교지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등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단기선교의 주요목표 중 하나인 일대일 복음전도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전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맞는 전도방법을

개발하고 전도지를 제작하는 등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선교위원회는 금번 단기선교를 통해 총현의 젊은이들 다수가 선교헌신자들에게 발굴되고 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대위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온 교회를 덮어 복음 열정을 통해 난국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총현의 성도들은 금번 단기선교가 전교회적인 중대사업임을 인식하면서 뜨거운 관심과 기도로 지원하기를 지속해야 하겠다.

남성도 구역장 영성훈련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난 5월 20일 수요일 2부예배 후에 배다니홀에서는 남성도 구역장 영성훈련이 있었다. 김성관 위임목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지난 3월 시작된 훈련 이래 가장 많은 150여명의 남성도 구역장들이 모였다. 김성관 목사는 요한복음 9장 초안부를 중심으로 전한 강

의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면서 우리의 판단이나 선입관, 이해에 묶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자고 강조하였다.

발문국	중국 1	방글라데시	수단	스리랑카	인도	몰골	중국 2
기간	6. 20-6. 29	6. 25-7. 4	6. 27-7. 10	7. 22-7. 29	7. 23-8. 3	7. 28-8. 4	8. 5-8. 11
지도	전형준	박경한	김희주	이승수	김동하	김필문	조문찬
단장	송환창	정홍식	이창호	신광식	윤인현	임무천	이갈재
총무	정성기	정희용	박태양	송원식	김영길	한용배	허우근

제2회

애급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6월 16-19일 애급 현지에서

선교위원회와 당회는 이준교 선교사가 청원한 제2회 애급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를 지원키로 하고 요청 재정 전액을 송금한 후 기도로 지원하는 중이다. 이준교 선교사는 96년부터 애급 현지인 목회자들의 계속교육을 돕고 이들을 통해 장기적으로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자 이 세미나를 시작했다. 두번째로 실시되는 금번 세미나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에 걸쳐 '목회자의 영성 개발과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초청대상자는 애급인 목회자 60여명이다. 이준교 선교사는 이를 위해 애급 교회의 각 노회별로 참가자 추천을 받아 초청을 하되 금번에는 주로 40세 미만의 목회자들을 초청키로 했다.

경제난국의 영향으로 선교대원에 대한 불안한 추측이 계속되는 이 즈음에 총현의 성도들은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영혼의 기쁨을 가슴으로 새로워지도록 기도해야겠다.

총현 교회학교 지도자 기도회

5월 20일 국제회의실에서

지난 5월 20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교회학교 부장 및 교역자 전원은 국제회의실에 모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예배를 통해 이종대 목사(교육위원

회 지도)는 교역자와 부장 간의 성실한 신뢰와 복음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후 정하수 장로(교육위원장)의 인도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교회학교 각 부서간 전산연결망을 통한 효과적인 교회교육 행정의 일원화, 계절학교 준비와 관련한 지침사항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김단웅 장로(중등1부 부장)가 제안한 바 교회학교의 책임있는 지도와 성장을 위해서는 연석회의의 정례화 및 교회학교 부장·교역자 연합수련회 등이 절실하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다수가 동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회의 후에는 약 30여분에 걸쳐 교회와 교회학교를 위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군전대회 특강

5월 29일 비전 2020

군전대회는 오는 5월 29일(금) 오후 5시 30분에 갈릴릴홀에서 군전대회 5월 월례회 및 특강을 실시한다. 특별히 금번 특강은 군복음화 후원회 비전 2020 실천운동본부(교회에 대한비는 연 20만 명의 신자들을 교회에 연결하여 제자로 삼아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자는 취지에서 발족된 모임)의 본부장으로 사역하는 이필성 장로(육군중앙교회, 예비역 육군대장)가 발아 군복음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총현의 성도들을 특히 자녀 혹은 형제를 군에 보낸 성도들에게 자녀들의 군생활을 복음화 위한 훈련장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귀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7교구 전도운동

6월 4일 고덕관공관원에서

7교구는 오는 6월 4일(목) 고덕 제5관공원에서 '다목적 전도운동'을 실시키로 하고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7교구 식구들의 교제와 단합, 장기결성 성도들과의 회합 및 전도, 그리고 일일 알뜰시장 운영을 통한 이웃들기 등이 복합된 금번행사를 통해 7교구의 의미있는 교구 부흥의 진로를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행사 준비위원들은 장기결성 성도들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행편에 따라 적절한 초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당일 모임 중 전도회별 월례회를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단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시장 운영을 위해 집에서 묵고 있는 상품들을 모으고 있다. 행사진행방식은 이 모든 행사들에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행운상 추첨 및 기념품 증정의 시간도 마련했다.

모쪼록 7교구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행사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결실을 맺어 전교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총현의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 연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벤엘찬양대 출범 이후

4월 19일 출범한 후, 지난 5월 10일 주일 5부예배시에 정식으로 임명된 벤엘찬양대(대장 서동식, 지휘 강인규, 반주 민희정)

벤엘은 고등부 예쁜찬양대 및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리는 일대송의 융합합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 깨끗하게 쏟아지는 젊은 소리들이 '성도여 다 찬양하라'를 외칠 때, 예배자 전원은 그야말로 맑고 건장한 영혼으로 준비된다. 특히 앤드루 파이어의 찬송 반주와 헌금송은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드러낸다.

거취를 맡은 강인규 집사는 '젊은이들이 진정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힘있는 비전과 신앙관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소망을 전했다.

벤엘찬양대의 내실있는 성장과 영감어린 찬양이 기대된다.

애굽의 쇠퇴와 회복 (2)

(이사야 19:11-25)

“종교, 정치, 산업 등 전반에 걸쳐서 모두 망해버린 애굽은 유다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공포와 회의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은 재난을 일으키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재난을 피해 보려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김창 인 목사

지난 호에 이어

1. 애굽의 쇠퇴가 어떠했습니까

- (1)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 나까
- (2) 애굽에서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나까
- (3) 애굽이 심판을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나까
- (4)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나까

2. 애굽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라는 위협적인 선언을 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약속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부강하여 문화와 군사력을 자랑하던 애굽이 범죄함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생활은 궁핍해지고 행정은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 와서 덮쳤습니다. 울어도 힘써도 살날 가장이 없어보입니다. 흉년은 계속 드는데 참을래야 참을 힘이 없습니다. 수천 년 뽀얀 애굽이 이렇게 망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에 애굽에 고마운 회복의 기미가 생겼습니다.

(1) 애굽이 회복되는 과정이 어떠합니까

① 애굽인들이 구원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17절)

종교, 정치, 산업 등 전반에 걸쳐서 모두 망해버린 애굽은 유다의 거룩한 땅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공포와 회의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은 재난을 일으키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재난을 피해 보려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②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와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18절)

애굽이 여지없이 망했을 때에 백성 가운데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자들

이 생겼습니다. ‘애굽’이란 타락한 세상을 대표하고, ‘가나안’이란 하늘나라의 백성을 지칭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섬기던 귀신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는 교만한 마음도, 사람을 믿던 마음도, 우상을 섬기며 미신을 따르던 마음도 다 버리고 미신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는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많은 성읍 중에서 우선 다섯 성읍이 자기들이 찬양하던 귀신에 관한 책들을 모두 찢어 버리고 귀신당들을 열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다섯 성읍 중에서 한 성읍의 이름이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은 태양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읍에는 태양을 섬기는 귀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읍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③ 애굽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이 세워질 것이라 하였습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19절) 애굽의 왕이 있는 중앙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이 쌓이고 시골 곳곳에는 애굽에 유교인들을 보내어 건지실 것이라 하였습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20절)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제단을 쌓는 애굽에 사방을 배부십니다. 그렇게 범죄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남은 사람들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바로 살 때에, 하나님은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표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애굽을 정령하여 귀신당과 바르 살 때에, 하나님은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표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애굽을 정령하여 귀신당과 바르 살 때에, 하나님은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찾아 주십니다.

‘구원자’는 궁극적으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애굽인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회심하게 되었고, 마가의 전도로 의하여 애굽에 많은 기독교 교회가 설립되어 수세기 동안 줄곧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④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돌아올 것이라 하였습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도 행하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21, 22절)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십니다. 애굽의 방방곡곡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임하고 그것은 바로 경배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는 회개하고 돌아서기는 했지만 애굽은 아직도 죄가 있어서 여호와와는 그 나라를 치시고 그 후에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행동 속에는 고치시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악한 애굽이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바른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를 찾아 주시고 자아와 풍년과 평안을 주시므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애굽이 회복되어 어떤 나라가 된다 그 합니까

① 앗수르와 화목하는 나라가 될 것임이나.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23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멀리 떠났었으나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자 원수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다 무너지고 신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화목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복받은 증거입니다.

② 선한 일을 하는 나라가 될 것임이나.

“...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23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멸망하게 되었던 애굽 사람들이 진정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끼리 화목하게 된 후에는 선한 일을 하는 데 합심을 합니다.

③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임이나.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라 하실 것이니라”(24, 25절)

서로 하나가 되어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 세계 각 나라가 이 모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3) 본문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도 망할 일만 골라서 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사 19:11, 13). 죄로 인하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됩니다(렘 4:18). 저와 여러분은 죽을 일을 골라 하면서 교만해지면 안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지혜가 없어지고 사욕한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사 19:14, 15). 셋째로, 매를 맞는 시간에 반항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회개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사 19:18-22). 애굽같이 범죄하던 백성이라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사 19:23). 하나님과 화목하면 지옥같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형체가 범한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나를 회개하면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줄 마음이 생깁니다. 진정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인간적인 원수도 멀리 없은 장래에 사랑으로 정령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사 19:24-25).



김성관 목사

내시의 회심

(사도행전 8:26-39)

빌립이 에디오피아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이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시가 세례를 받기로 즉시 작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 당신의 사역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복음은 온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사도들과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두드러진 것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친히 분부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행 8:29, 11:28, 15:28, 20:23, 21:4 등).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의 특정한 곳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26절). 빌립은 지시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관세사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27절).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미 구약의 술로 문은 이방인들이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는 것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왕상 8:41). 이를 알자니, 스마나 선지자의 예언도 이에 일치하였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바나 혹은 자의 땅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습 3:10).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예언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요 마입니다. 진리입니다.

빌립은 한 에디오피아 사람이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28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29절). 이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신 첫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빌립은 자신의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였습

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노뇨?"(30절).

에디오피아인은 자신이 읽고 있던 말씀의 내용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으나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노?"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았으나 하나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 저가 사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잡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벗어났기리요 -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

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한 재림의 사건을 의미하며, 이 모든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곧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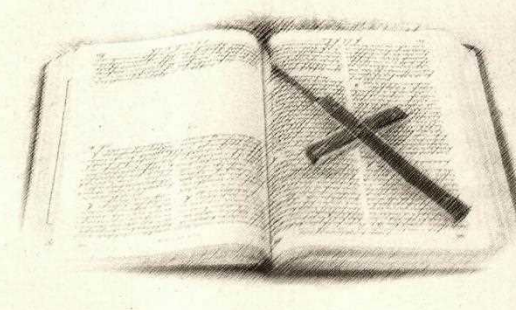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눅 24:27). 이 구약의 말씀들은 이스라엘만의 종교규례와 역사로 인식되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이방인을 모두에게도 열려 있는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새 언약일에 이방인들

덧붙였을 때야 비로소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중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을 뿐 아니라 친히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명확함을 받으므로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이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시가 세례를 받기로 즉시 작정한 것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노?"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물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36-38절).

이 사건은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본문의 에디오피아인은 하나님을 알았으며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이에 성령님께서서는 빌립을 향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인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으며 결국 세례까지 받았습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어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에디오피아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은 그에 적합한 질문을 던졌으며 성령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방인 내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복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들에게 속했던 장녀 영원한 빛으로 돌이키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중인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천천교회의 모든 성도들까지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천령의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중인이 되라고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아멘. ■



더러 말하되 청컨대 물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로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31-34절).

빌립은 입을 열어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증거하였습다(35절). 놀랍습다! 빌립은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습니까? "그러나나 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

니 있는 데살로니가와 암비리, 아볼로니아에서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행 17:1-2).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의 주권공이신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중인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행 1:8).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도들의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님의 권능을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케냐



평원을 가로질러 주님께로

그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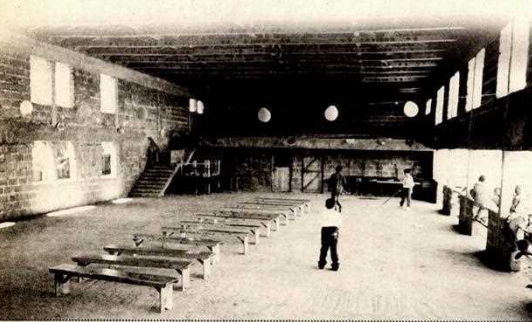
한국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애써 주시는 천교회 성도님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현의 식구들의 끊임없는 기도로 이곳에서의 사역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이곳 케냐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든 무리를 보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도 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월 둘째 주에 디어 레레드등학교에 교실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무척 힘들게 완성된 교실인 것 같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렸지만 자재를 사다 나르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교실 개를 더 지어야 하는데 충분치 않은 재정 때문에 짓는 것을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교실 증축과 차량 구입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케냐에서 고 은빈 평신도선교사 올림



배달해 드립니다

알고 계세요? 충현의 젊은이들이 단기선교를 떠나는 것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인데.

단기선교를 가는 6개 나라(수단, 방글라데시, 인도, 몽골, 중국, 스리랑카)로 의료(제한 없음), 신발, 문구, 의약품 등을 충현의 젊은이들이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한결같이 가난한 나라에 말로만 의사가 아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는 사랑, 이번엔 한 번 해보시겠어요?

다만, 이런 사랑은 사랑합니다.

- 1) 너무 낡은 것을 모아 모아 보내는 사랑.
- 2) 세탁하지 않은 옷을 모아 모아 보내는 사랑.
- 3) 나도 쓰지 못하는 물건을 모아 모아 보내는 사랑.

물품 접수는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에서 합니다.

선교사는 균형을 잃은 사람인가

노튼 스티렛

선교사들은 균형을 잃은 사람인가?

물론 그렇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한다. 선교사는 애초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테니스를 치고 음악을 즐겨 듣는다. 그러나 선교지로 떠나기 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동정을 받기도 하면서 그는 비전 때문에 부모와 확실한(?) 장래와 고향을 떠나는 사람으로 알려진다. 환상을 좇는 사람처럼도 보인다.

그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면 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그에게는 어떤 큰일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프로야구 결승전이나 테니스컵 경기 등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일상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유명 인사와의 만남)조차도 그를 흥분시키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어한다. 그는 그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악의 세력과의 갈등이 공개적이고 치열한 곳, 의복이나 유행과의 싸움이 없는 곳(옷차림 같은 것은 전혀 관심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신경 쓸 틈이 없다), 사람들이 선교사의 도움 없이 죽어 가는 곳(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선교사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곳), 그들에서도 기온이 섭씨 50도 가까이 되는 곳, 그리고 선교사는 그늘에 있을 틈도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있었다. TV에 나오는 인기 가수에 대해 말하러 알아듣지 못한 채 멍한 표정을 짓고, 흥행에 크게 성공한 영화를 화제로 삼아도 그것이 뭐고 물어 보곤 한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가? 지구상에 3,000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이 그리스도를 모른 채 영원히 죽어갈 만큼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의 일부는 그의 목전에 죽어 갔다. 알파한 배가 뒤집어지면서, 콜레라가 만연하면서,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그의 목전에서 죽어 갔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가 있었는

가? 아메바성 이질에 두 번이나 걸릴 만큼, 거둬되는 말라리아에 지친 아내를 간호해야 할 만큼,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전에 어머니의 죽음을 전해들을 만큼 오래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말인가? 몇몇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볼 만큼, 자신이 가르치는 성경공부에서 그들이 생수를 마시는 것을 볼 만큼, 그들이 비그리스도인 친척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함께 감동하고 고통받을 만큼, 소수의 든든한 신자들이 그들 스스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볼 만큼, 그 지역사회에 다시 전도할 수 있는 토착교회를 이들이 세우는 것을 볼 만큼 오래 있었다.

그렇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본국에 돌아온 이제부터는 옷차림이나 나라의 정세, 오락, 사회생활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새 옷 한 벌 값이면 3,000원의 복음서를 살 수 있고, 본국에서 한 명이 직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5,000명의 인도인이나 중국인이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당신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모임에 오면 아마도 당신들과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아마 금식 그가 말을 더듬으면 수년 동안 거의 외국어로만 말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어로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용변가담지 못한다면 그는 오랫동안 강단에서 모국어로 말할 기회가 없었을 것임을 기억하라. 인도의 장터에서는 유창하게 말할 것이다. 그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민첩하지 못하다든지, 혹은 청소년 전도자와 대학교수들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는 당신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급격하게 다른 사회제도 아래서 살아왔으므로 일상적 대화에 익숙하지 못할 것임을 기억하라.

선교사는 틀림없이 균형을 잃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기준인가? 당신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인가?

(폴 G. 허버트의 <선교와 문화인류학> 중에서 발췌)

선교를 위한 요일별 기도제목

단기선교를 가는 7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월) 수단 단기선교팀을 위해
- 화) 대학부 단기선교팀(인도, 방글라데시)을 위해
- 수) 청년1부 단기선교팀(중국, 스리랑카, 몽골)을 위해
- 목) 고등부, 청년2부 단기선교팀(중국)을 위해
- 금) 이준교 선교사, 안석철 선교사, 김영태 선교사 사역을 위해
- 토)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위해

‘장승’을 베자?

황지훈(대학부 1학년)



요 근래 제가 다니는 홍익대학교에
서 학교에는 있지도 않은 ‘장승’
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유인즉, 학교
앞에 세워져 있던 장승이 베어졌기 버
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입에 장승이
바쁘게 오르내리고 대자보가 붙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그
장승을 뺀 장본인이 기독교 학생들이었
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장승을 만들 때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일은 한밤중에 몰래 행해진 일로, 너무 절차와 방법을 무시했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경과가 어떻게 되었든 학교 내에서 기독교의 어둡기 무척 불리해졌고,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생

거났습니다. 통신상에서도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졌고 결국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호지부치되어 몇몇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높이는 경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학교 캠퍼스에서의 끈질기게 따라붙는 전도자들은 거부감만 느끼게 하고, 친구 때문에 한번 따라갔던 교회는 사람을 질리게 한다고 합니다. 일부 크리스천들의 세상에 대한 오해지루한 태도 이외에도, 사람들을 교회에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들이 그들에게 미친 반감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닫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

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는 조화도, 사람들도 생각도, 문화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따라서 시가 적절히 변화해 왔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그 당시의 문화를 활용하시니, 교회를 성경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방식도, 노래를 듣고 찬양을 하는 모양도, 우상을 배격하는 방법도 언제나 이전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하나니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까가 더 중요한 것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되어
야 하겠지만 세상과 담을 쌓을 수는 없
습니다. 세상과 내 마음이 담을 쌓는다
면 세상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해줄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장승이 학교에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장승의 의미를 빼어내고 나면 그것은 단지 나무 조각일 뿐인데,

강장을 베풀었던 이들에게는 사실 계가
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용감한
분들이지요... 저도 깨어 있는 사람은
아니기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깨
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직접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파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교회에
서나 어디서나 매일같이 새로운 하나님
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만이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
다.

5월 5일은 무슨 날?
대학부 체육대회...

— 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에서 —

“**우** 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일기예보가 ‘예보’가 아니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4월의 날씨는 5월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5월 5일 운운의 차원을 넘어서, 따가운 햇살이 땅 위의 수분을 온통 빨아들이는 정도로 내리쬘었다. 좋은 날씨 주심에 일단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 오늘 하루 큰소리 땅땅칠 일 거나니 꼬마들께 볼래? 따مم 써줘줄래 찰리실 대한의 아빠...엄마들 생각에 웃음이 쿵쿵 나왔다.

여기는 고덕역. 드문드문 아는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이 몇시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자 커지는 총탄 터짐이 30분이나 늦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팀원들을 기다린다면서 천원덕스럽게 손 흔들던 남창부. 하지만 그 따뜻한 쉼표에 걸림당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다가 거리는 한산하고 깨끗하여 자전거를 일여섯 세울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이런 생각을 했다. ‘와~ 자전거 타고 달리면 정말 멋지겠는걸?’

드디어 광문고등학교에 도착! 모두들 이미 잔디에 둘러앉아 개회에배를 드리고 있었다. '... 달음질하는 자들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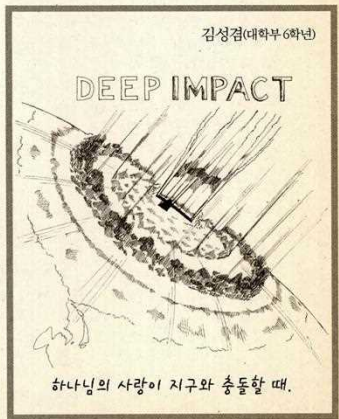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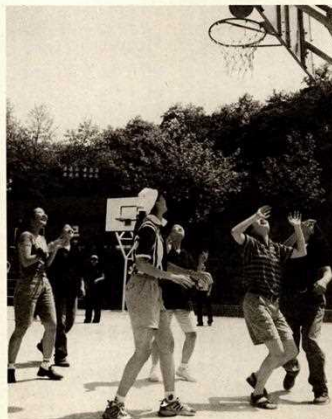
4학년 송은길 형제의 인도로 가뵈게, 그러나 정말로 진전되었던 '공산티던트'를 위한 '가마천' 팀을 위임했던 이후 제후대교회가 시작되었다. 중심사시는 '팀별로 이루어졌는데 김밥만 종류별로 차고 넘치는(?) 팀이 있는가 하면, 김밥은 기본에 샌드위치에서부터 치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준비해 온 팀도 있어서 그야말로 먹을 때만 교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아낌없이 적용하느라 어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는 형제들도 자주 보였다.

광문고등학교 운동장은 참 넓었다. 서너가지 경기
가 동시에 펼쳐졌는데 비룡이는커녕 녀석들이 말
이다. 경기는 학년별 대항이었는데 애 세살과 달리 고
년들의 도련기가 돋보이는 하루였다. 물론 4학년 형제
들은 축구에서 1학년 형제들에게 3:2로 역전패하고도
무렇진 않았다. 부분과와 발자구· 농구 등이 끝나갈
쯤엔, 운동장 모서리 좌변에서 끈질기게 지켜보던
죽주는 전도사님 두 분과 목사님의 열성에 자처하는
이로 하여금 두 손뼉을 쳤다. 「목사님, 전도사님, 새
생애!」 대대적인 마무리는 역시 계속 5, 6학년 선배들

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정보에 따르면 이날 뒷돌이를 하기 위해 올림픽 공원에 몰려든 3·5·6학년들이 서로의 친목을 다진 후 기도회를 가졌다고 한다. 언제나 모일 때와 흡사할 때, 장소가 교회 안이든 밖이든 개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대학부원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끝으로 아침 7시부터 모여서 준비하고 예쁜 임원들에게 하나하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며, 늦었지만 박수를 보냈다. 짹! 짹! 짹!

취재 / 최정은 (대학부 4학년)



김성겸(대학부 6학년)

DEEP IMPACT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와 충돌할 때.

어머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진규

(집사, 7교구, 97년도 전도왕)

어머님!

성경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77세의 일기로 세상이 떠나서 천국 본향에 가셨으니, 짧지도 길지도 않은 세월을 사셨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너무나 엄청난 고생을 하시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피로움과 고생을 끝내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주님의 나라에서 편히 쉬십시오.

지나온 세월 동안 어머님과 같이했던 세월들이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시간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영하에 구뎌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사랑스레 대해 주시던 어머니.

저에게 어릴 때부터 하시던 그 말씀(송담) "공심은 데 공나고 팔심은 데 팔나"고 하시며 감직하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그 말씀이 수 십년이 지난 오늘에도 귀에서 쟁쟁하게 들립니다.

병환으로 누워 계셨던 8년이란 긴 세월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때도 자식된 도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혹 서운하시지는 아니하셨는지요?

병으로 누워 계셨을 때 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정말 좋아요"라고 하실 때 저는 꼭스러워서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기도 했지만 이제야 부모와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 갓 같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니 어머니와 함께 줄든 시간을 가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납니다. 살이란 떠나고 나면 그저 한 줄의 흙으로 남는 부질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무엇이 그렇게도 바쁘다고 핑계대고 좀더 잘해드리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무시다가 저의 운석만 돌리던 버선발로 뛰어내와서 반겨 주시던 어머니. 이제는 맨발로 뛰어내와 반겨 주실 어머니도, 쓰러져 가는 초가 살과도 저에게는 없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질병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할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그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

가시기 3일 전날 밤 어머니의 모습은 평생의 여든 모습보다도 어뵈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곱았으며 어머니의 눈동자는 새벽의 별빛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봉헌과 신앙고백을 하시며 "이 집사, 나 대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인도하여 줬요"라고 부탁하시던 어머니.

어머님의 부탁하신 대로 저는 오늘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을 만날 때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지상영령을 중매하는 영적의 병사로서 사명 감당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예수님을 만날 때면 사랑을 받는 아들로 서 있고 싶습니다.

어머님!

지금도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시던 예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많은 식구들이 총회교회를 위하여 또한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지요.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의 품에 편안히 쉬세요.

복소 아들 이 집사도 남은 신앙의 경주 잘하다가 주님 나라에 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뵈겠습니다.

성락교회(김기동)

정현민

(목사, 16교구·청년부·법조인전도회·도사정학회 지도)

‘베’ 피아 아카데미'로 유명한 성락교회는 기독교 남침례회 소속으로 영도포구 신길3동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최대의 침례교회임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김기동은 40만명의 귀신들린 자들을 축사했다고 자랑하는데, 교회의 철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김기동은 과연 어떤 인물이며, 또 그가 가르치는 마귀론은 성경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기동의 악력

김기동은 1938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세 되던 해에 처음으로 감리교회에 출석하였는데 바로 그 이튿날부터 부흥회에 참석하여 방언을 받고 8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곧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일주일만에 1독하고 만 1년만에 42독을 하였으며, 평신도 시절에 75독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여인의 초상집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부터 소위 그가 주장하는 '귀신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기동의 마귀론과 비판

1. 병이 되었고 귀먹은 귀신
김기동은 불신자의 사후 영이나 또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9:25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본문에서 질병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고 그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과 병행 구인 마 9:32는 막 9:25의 '병이 되고 귀먹은 귀신'을 '귀신들이 병이 되고 병이 되고 귀먹은 귀신'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막 9:25의 귀신도 마찬가지로 귀신 자신이 병이 되고 귀머거리로 죽은 귀신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병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게끔 하는 귀신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 모든 질병과 사고의 원인은 귀신이다.

김기동은 모든 질병, 사고, 중독, 범죄, 자살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일산부들의 구토증이나 차멀미, 메달미까지도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였던 누가 9:7:21에서 '질병'과 '고통' '악귀 들린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말합니다. 고후 12:10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하며, 특히 딤후 5:23에서는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증거 본문들 중의 하나가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질병과 사고의 원인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로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개인의 가벼운 실수나 무지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경우에 그 원인들을 모두 귀신에게 돌려야 한다면, 가령 인간이 피곤해 있는 상태로 귀신이 들려 있는 상태로 말입니까? 인간 개인의 무지까지도 귀신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까? 김기동은 모든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간주하고 있으니 아마도 '귀신의 섭리'라는 용어도 옳은 표현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마치 하나님의 주권과 거의 대동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 과연 옳바른 신앙인가? 또 인간의 책임이나 그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리니 말씀하기를 죄의 소원이 마귀나 귀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린다"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 4:7).

성경관

김기동은 자신의 체험과 마귀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은 주장하기를 성경은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그는 성경 66권을 성경과 성서로 구분하면서 성경은 모세5경과 공관 복음서의 8권뿐이며 이는 결코 가감할 수 없다고 나머지 58권의 책들은 성경이 아닌 성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언들이 시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성서는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철교집과 간증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성서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의 주장은 그가 성경의 주창에서 어긋난 이단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

김기동은 비단 마귀론뿐만 아니라 창조론에서도 '이중 인간창조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삼일절제헌에서 그는 양대론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기독교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신성을 부인하며 인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대내론에서도 '불신자의 사후 영이 귀신이다'라고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주를 음부라고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기동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통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 소식

지체들 소식



11교구

지역별 전송가 부르기대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7일에 시작한 지역별 전송가부르기대회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진다. 순위나 시상 목적이나 지역별로 보다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 훈련을 하는 뜻깊은 대회로 진행되고 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가 참여할 지역이 있는가 하면 복장을 통일한 지역도 있었으며, 100회 이상의 연습을 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또 어떤 가정은 초등학생의 어지 연구까지 접하여 그 진가를 다했으며, 전문성을 가진 임마누엘영성성장단과 김효숙 집사 독창으로 더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5교구

교구영성훈련

15교구 영성훈련(12월)은 예상보다 낙낙하게 도착한 덕분에 많은 관중으로 준비된 성령과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었다. 오인숙 전도사님의 기도와 각 지역장 및 전도회장단의 특송에 이어 김인식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전(전 31-9, 주제 : 율법이나 복음이냐)가 있었다. "이리석이다!" 하시는 책망에 이어 "누가 너희를 피다냐" 다시 물으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믿음으로냐" 거듭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날마다 내어놓고 순결과 고백의 회개된 신앙생활과 기도와 헌신으로 영성훈련을 통해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의복과 같았음을 고백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들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과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상급을 바라보고 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는 권면과 교구 식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시므로 말씀을 마쳤다.

점심시간 전에 청소를 마치고 내리는 비로 인해 2시간 가량 전송부르기 시간을 가지며 전도사님들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체험한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후 내 지역이 모두 모여 중동기도복음(1, 나라와 민족 2, 총회와 교회 3, 세계 전도와 지역 복음화 4, 교구와 구역 5, 가정의 평강 6, 환자와 약한자 성도들을 따라 세례하 합심기도를 전심으로 드렸다. 바나나 주안식의 빛이 더 선명함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령의 충만이 지속되기를 소원하였다. (한송정 통신원)

영아부

지난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영아부 교사들은 예쁘고 깨끗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다. 이날 부장 장로님은 "아기와 엄마, 아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교사들의 몸에서 교사들의 마음에 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다. 각 스승인사 예수님을 모신 우리 교사들은 사랑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교사들은 마음을 간이며 특별찬송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또한 21일(목)에는 영아부 교사사회를 청계산 기도원에서 가졌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유아부는 지난주일(17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교사들은 가슴에 꽃을 달고 정성이런 선물도 받으면서 그럴 자격이 없어 반성도 할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사랑 넘치는 선생님,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으로서 부끄러워지 않은 자 되도록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항상 집에서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하는 엄마 선생님들께도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유아부 친구들! 선물을 고마워요. 하지만 가장 귀마운 선물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입니다. (임미순 통신원)

유지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도 지으시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게 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유지부 어린이들의 얼굴이 더욱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2부순서에는 고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밀가루 반죽으로 "조물조물" 재현해 보려고 애를 쓰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요롭게 누리며 지혜롭게 사느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유지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우리 유지부에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조인혜 통신원)

유년부

저번 주까지 우리 유년부 1과부터 3과 선생님에 대한 소개 발표였어요? 이번 주부터요, 유년부의 연인 2학년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 알려드려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유년부 연인 조관길 과장님의 4과부터 소개드릴게요. 전에도 말씀을 다하지 않고 구역을 돌보는데 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순복 선생님(1반)이 계시구요. 항상 성경읽기를 즐겨하며 말씀을 안

에 거하시며 아울러 사랑부의 차량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양승복 선생님(2반)이 계시답니다. 유일한 총각 선생님이요 어린이들과 세대차를 느끼지 않으시며 쿿은 일도 앞장서서 도맡아 처리하시는 유용수 선생님(3반)은 유년부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윤미라와 선생님(4반)은 기도의 전사로써 매주 기도원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하시며, 특히 학원전도에 힘쓰시고 계시지요. 또한 날씬한 몸매와 깔끔한 옷으로 단전에서 아침 일찍 달려나오시며, 아멘찬양대원으로 활약하시는 이명자 선생님(5반)이 있으시구요. 바쁘신 사업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봉사를 하시며 힘, 물질, 시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계시는 김경희 선생님(6반)이 계시답니다. 온화하고 포근한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감싸 주며 복음의 통신원이 되고자 하시는 송영복 선생님(7반)까지 4과를 이루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가득차답니다. 다음 주일에는 멋진 5과 선생님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장지훈 통신원)

소년부

새진구초정전지

오는 5월 31일(주일) 오전 9시에 교육관 407호에서 새진구초정전지를 열립니다. 해마다 준비하는 잔치이지만 너무나 가슴이 설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양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오는 어린 양들이 차고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새진구초정전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고 싶어서 소년부 어린이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유치원이나 소년부를 소개하는 영상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여러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은 물론, 예수님 안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새진구초정전치가 될 것입니다. 한창 예뻐하고 지식이 날로 커가는 어린이들을 성령이 충만한 어린이로 키우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늘 준비하며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5월을 마감하는 마지막주에 많은 어린 학생들이 모두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연옥 통신원)

중동2부

그 불고 고운 빛깔이며 화려함 때문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꽃피듯이 아름다운 오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지난날, 전달래도 그랬고 게나리가 그랬듯이 이 장미들도 계절의 일부 분봉으로 가슴 설렘없이 없이 그 저지 나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다소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잃은 양 찾기와 학교 전도 그리고 전신자와 작은음악회를 위한 전도사 금식기도와 아치는 가운데 여름수련회가 예년과는 달리 '살아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 많은 기도와 수고 가운데 발표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보니?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어 채워지는 것은 빈 자리들과 말씀 공부에 무관심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지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남중초 선생님에 이어 다시 100% 출석률을 이루신 백씨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따라 한 분, 한 분을 맞춥니다.

"선생님, 우리 힘을 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으시고 참으셨을거예요.

아니, 지금도 참으시고 계시잖아요" 부딪히는 눈길마다 이런 다짐이 주어집니다.

"이번 수련회의 프로그램은 정말 '살아 있는 프로그램'이 될거라고..." (나성에 통신원)

고등부

낙도전도활동 참가자 모집

우리 고등부에서는 올여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낙도 단기 전도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 거제군 도리에서 축초전도, 여흥성경학교, 마울봉사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고등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를 위해 선생님 3-4명, 학생 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며 신청서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전도활동에 믿음으로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연정 통신원)

청년2부

초정전도잔치

오는 30일 초정전도잔치를 실시한다. 단원회에서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단원들은 각 반별로 손수 음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초청자들과 함께 애잔을 나누어 예정이다. 30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백명자 통신원)

복지관

성년의 날 - 작은 음악회



5월 18일(월) 복지관에서는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조출한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번이 성년이 된 혼련생은 모두 10명이었다. 이 행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며 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심어 주고자 마련되었다.

1부 순서로 간단한 성년의 날 기념식을 하고 2부는 작은 음악회로 이어졌다.

작은 음악회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한 성년들이 줄기 가요와 같은 대중음악편을 듣고 플루트 혼련생들에게 복음성가, 가곡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어서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자선적인 친구들과 모두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댄스 음악, 랩 대중 음악에 익숙한 혼련생들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고전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자원봉사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바쁜 시간을 나누어 우리 혼련생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준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 혼련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자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 회 소 식

● 알 림

1. 구제현금 안내 / 31일(다음 주일) I, II, III, IV, V 부에서 드립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모 임
1. 장로 회오색벽기도회 / 26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행정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사무국
3. 군전도회 월례회 / 29일(금) 17:30, 갈릴리움
4. 십일인전도회 · 군전도회 · 교정전도회 주일기도회 / 매주일 15:30, 사랑부실
5. 십일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28일(목) 새벽기도 후, 십일인전도회실
6. 안수집사회 월오색벽기도회 성경공부 / 25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7. 권사회 제4회 월례회 / 27일(수) 1부 예배 후, 사랑부실

● 남녀전도회

1. 바 울 7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5호
2. 바 울 9 / 28일(목) 19:00, 암소 한마당(면목7동 두산A 정문앞, ☎ 494-8879)
3. 바 울 11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4. 바 울 1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12호
5. 베드로 7 / 28일(목) 19:30, 엄종배 집사대(488-0501)
6. 오 한 7 / 26일(화) 19:30, 이종현 회장대(삼익A, 605동 앞, ☎ 441-9329)
7. 오 한 14 / 오늘 19:00, 원성수 집사대(682-6332)
8. 마리아 6 / 26일(화) 11:00, 올림파공원 북2문 까치다리 건너 오른편 정자

● 결 혼

1. 김영국(김광태 성도, 이상선 성도의 아들, 제19교구)과 오영영(권봉임 성도의 딸) / 25일(월) 13:00 목동반석교회
2. 배종운(배규기 씨, 노정자 씨의 아들, 제19교구)과 김혜원(김부남 장로, 박형복 집사의 딸) / 26일(화) 13:00 갈릴리움
3. 정지태(정원일 목사, 김재현 사모의 아들, 제19교구)과 최희영(최재우 씨, 박원숙 씨의 딸) / 29일(금) 12:00 갈릴리움
4. 배동국(배성태 씨, 김명자 씨의 아들, 제19교구)과 최지연(최대환 집사, 유선덕 집사의 딸, 제7교구) / 30일(토) 13:00 갈릴리움
5. 유연식(유이준 성도, 윤수원 권사의 아들, 제7교구)과 성경림(성홍근 씨, 서명희 씨의 딸) / 30일(토) 13:00 복지관
6. 민재원(서정주 집사의 아들, 제14교구)과 최혜정(장미영 씨의 딸) / 30일(토) 14:00 로얄레남동
7. 이재준(이철희 성도, 박숙희 권장의 아들)과 이현정(이국락 성도, 김순자 권사의 딸, 제14교구) / 30일(토) 15:00 복지관

● 별 세

1. 장오순 성도(김춘숙 집사 모친, 이명제 집사 장모, 제17교구 정동2구역) / 13일 별세, 15일 장례
2. 서진주 집사(관용철 성도 부인, 제17교구 서현3구역) / 14일 별세, 16일 장례

● 직장 전회번호 변경

1. 최정남 안수집사 / 직장☎: 3424-3123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941	노전영	2	예스대	노전영(1)	960	고경남	19	대학부		979	구순종	19	청년1부		980	구성종	19	청년1부	
942	홍숙인	6	소망부	이용현(6)	961	이효준	19	대학부		981	한윤희	19	청년1부		982	황규리	19	청년1부	
943	이유은	6	예스대	이용현(6)	962	이성희	19	대학부		983	고복희	19	청년2부		984	정지현	19	청년2부	
944	박금란	6	루디아	박정미(7)	963	임상희	19	대학부		985	이경성	19	청년2부		986	남기남	2	베드로	
945	김동호	9	바울		964	이성현	19	대학부		987	이혜아	19	청년1부		988	표진만	19	청년1부	
946	이덕순	9	루디아		965	지명구	19	대학부		989	남태현	2	청년2부		990	유철진	4	청년2부	
947	김재현	9	청년1부		966	이재성	19	대학부		991	김지희	4	청년2부		992	강효림	4	청년1부	
948	김정민	9	청년1부		967	이수연	19	대학부		993	이영주	19	청년1부		994	이영주	19	청년1부	
949	김정민	9	고등부		968	전혜리	19	대학부		995	이성규	19	청년1부		996	이미진	19	청년1부	
950	김유리	9	중등부		969	김진아	19	대학부											
951	이유진	12	베드로	이정운(12)	970	손진석	19	대학부											
952	장종철	13	바울	위옥자(13)	971	박문권	19	대학부											
953	최박태	13	위옥자(13)	772	장승연	19	대학부												
954	서기현	15	베드로	염광호(15)	973	한준수	19	대학부											
955	노현애	15	루디아	염광호(15)	974	채수정	19	대학부											
956	김다은	15	베드로		975	황선율	19	대학부											
957	서지민	15	중등부	염광호(15)	976	신아영	19	대학부											
958	김정철	15	소망부		977	김수영	19	청년1부											
959	권관우	19	예배다부		978	장승민	19	청년1부											

※총연합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 ①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② 각 구역예배 및 남성도 구역예배, 구역장 훈련 등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힘있게 일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총련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③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찬양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 하소서.
-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하게 하소서.
- ⑥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 ⑦ 총련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민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현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필수 전현종 김재철 이숙수 정삼진 정현민 조문환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권상현 서광진 이숙환 정해성

■ 협동목사

윤경택 박형용 노봉린

■ 신도사

이종근 안석렬 김영태

■ 집사

이준경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두란

■ 전도사

최은복 정현희 현정남 정복진 장영자 김태우 김정자 박옥진 최지혜 송옥희 신동자 윤진숙 오장숙 김옥은 한영준 박종화 박희자 김영숙 김옥성 최영란

■ 교정전도사

한옥남(4)

■ 교육전도사

박신기 엄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명기 송철기 김장중 조재민 최진우 허용구 이두란

■ 선교전도사

정성기 장은희 박태양

■ 평신도신교사

유병생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간총련에서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도 여러분의 아름답고 진실한 삶이 담긴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간증문이어도 좋고, 우리들의 생활을 담고도 좋게 할 수 있는 재언이어도 좋고, 그밖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나 에세이도 좋습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곳은 주간총련 편집실 (선교관 303호, 구내번호 342, 348)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한 '98 임마누엘 찬양대/오케스트라 작은 사랑 음악회

일시 : 1998년 6월 13일(토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초 구민회관 대강당

주최 : 총연합회 임마누엘 찬양대/오케스트라
후원 : 총연합회 4교구, 서초구청 성우회

5월 31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부예배

임마누엘찬양대 · 오케스트라(지휘/조신옥, 오르간/백금옥)

(찬양곡목)

· 축복 · 면류관 가지고(25장)

· 주의 이름 크시고 영광되다

◆ 3부예배

할렐루야찬양대 · 오케스트라(지휘/김정림, 오르간/조희영)

(찬양곡목)

· 오 신실하신 주(찬 447장) · 감동깊이 흐르는 기쁨(찬 169장)

· 하나님께의 진리 동태(찬 276장) · 피김 받은 우리(구주(찬 467장)

◆ 4부예배

이연찬찬양대 · 오케스트라(지휘/강기우, 오르간/김남욱)

(찬양곡목)

· 주는 나의 빛 · 찬양한 것 같았으나

· 참되게 사는 길 · 오 신실하신 주(찬 447장)

· 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 5부예배

별명찬양대 · 오케스트라(지휘/강기우, 오르간/민희정)

(찬양곡목)

· 찬양할 오소서 · 오 신실하신 주(찬 447장)

· 더욱 사랑